교학 연구·후학양성 평생바친 거목

19일 입적한 홍정식박사의 학문과 인생

법화·천태학 발전 기여…下心 몸소실천 '귀감'

우리나라 현대 불교학의 태두 미산(米山) 홍정식(洪庭植) 박사가 지난 19일 오전9시 향년 79세로 입적했다.

홍정식박사는 1917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에서 태어나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나온 뒤 중앙불교전문학교에 들어가면서(1940년)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래 55년간 불교학 연구와 후학양성에 몸바쳐 온 대학자(大學者). 1961년부터 83년까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 하면서 천태학(天台學)을 비롯한 대승불교사상을 강의했다.

특히 홍박사는 불교학을 학문으로서만 연구하지 않고 실천자로서의 태도를 견지해 많은 사람들을 감화 시키기도 했다.

깨끗한 한복에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한 말씨로 강단을 지키던 홍박사는 '불교적 인격'의 한 표상이기도 했다는게 후학들의 회고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책 읽고 글 쓰는 일을 쉬지 않았던 홍박사는 "입적 직 전 까지도 쾌창한 기분이 었으며 아침 식사도 많이 하셨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두었다면 장님이 되도록 수행을 했던 아니룻다처럼 온몸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홍박사의 지론이었다. 실재로 홍박사는 자신의 지론처럼 불교학 연구라는 한길에 일생을 바침으로 우리시대의 불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중앙불교전문학교를 나온 홍박사는 불교중앙교무원에서 한때 일을 하다가 보문중, 강경상업학교, 조양보육사범학교, 보문고 교사, 경기대교수, 도서관장 등을 두루 거친후 61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취임했다. 특히 홍박사는 1973년 한국불교학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맡으며 우리나라 불교학 발전의 터전을 일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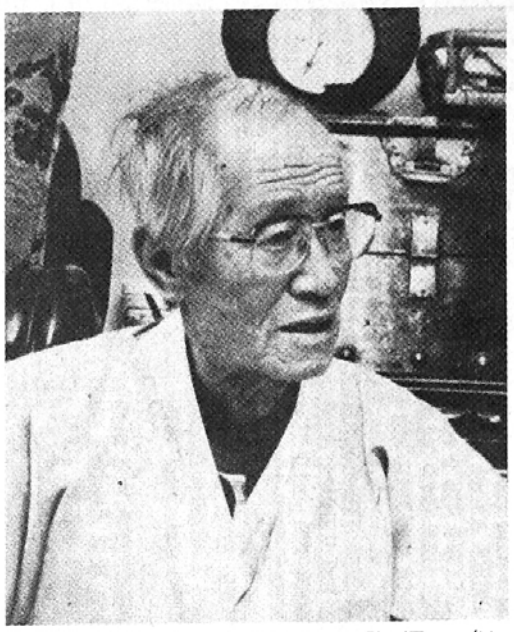
미산 홍정식박사는 1974년 동국대학에서 '법화불교학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후에 밝힌 법화학 입문동기는 오늘의 불교계에 큰 교훈을 남기고 있다. 즉, "비구·대처 분규가 일어 나면서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분규를 이념적으로 통합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법화경〉을 읽고 눈이 번쩍 열렸다"는 것이 홍박사의 회고였다.

홍박사는 법화경의 중심사상인 '회삼귀일(會三歸一·성문·연각·보살승이 일불(一佛)로 돌아 간다는 뜻)'에 오늘의 불교가 귀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었다. 이밖에도 홍박사는 한문불경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범어·팔리어·서장어(西藏語)문헌에 의한 불교연구가 지속돼야 하며 인접 학문과의 연계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준한 인품이 노학(老鶴)에 비유됐던 홍박사는 생활 속의 청정심(淸淨心)과 하심(下心)을 몸소 실행하며 불교학자로서의 기품을 보여 온 당대의 석학으로 불교사에 기록될 것이다.

▲주요논저 = 〈불교입문〉〈국역묘법연화경〉(번역)〈보살의 가는 길〉(번역)〈불교의 국가·정치사상연구〉(공저)〈법화불교연구〉〈역해 반야심경〉〈역해 금강경〉〈역해 유마경〉〈역해 선어록〉〈성문승 수기작불의 의의〉〈태국사회의 불교적 배경〉(보고서)〈법화경 결집자 자위적 고심〉〈불교의 정치사상〉〈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대승보살의 이상〉〈고려천태종 개립과 의천〉〈불교윤리의 본질〉〈금강경·유마경·선어록〉(단행본)〈법화경 초역·법화경요해〉〈법화불교의 연구〉〈역주 금강경〉〈대자대비관세음보살〉(공저) 등 다수.

임연태 기자



◇지난 19일 입적한 故 홍정식박사는 고준한 인품으로 '불교적 인격'의 표상이됐으며 후학양성과 법화·천태학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btn, 경전이야기 영상제작

드라마 '유마경' 내년 초파일 방영

천수경·금강경 인도등 해외로케

◇이희도씨

◇윤아씨

◇김길호씨

경전소설 〈유마경〉과 경전해설서 〈천수경 이야기〉〈금강경 이야기〉 등이 영상화 된다.

불교텔레비전 영상사업부는 정찬주씨의 경전구도소설 〈유마경〉을 지난 21일부터 드라마로 본격 제작하고 있다. 오태형극본 이원덕연출의 '유마경'은 민준역에 중견탤런트 이희도, 이옥역에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의 윤아, 지행거사역에는 연극배우 김길호씨가 캐스팅돼 열연중.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홍천군일대에서 촬영하게될 '유마경'은 내년 1월까지 상·하편으로 제작을 완료하여 내년 부처님 오신날에 특집방영과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찬주씨의 〈소설유마경〉은 보살의 자비를 주제로한 대승경전 〈유마경〉을 현대적 기법으로 소설화한 작품으로 〈유마경〉 사상의 핵심인 자비, 불이, 순수한 마음을 드라마로 형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강사인 민준이 도회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을 기도,마침 지나가던 만해스님의 유발제자였던 지행거사에게 구출되어 지행거사의 생활속에서 유마적 삶을 본 민준은 만해일대기를 불후의 명작으로 집필하려하나 욕망의 찌꺼기임을 깨닫고 도회지로 되돌아 온다는 것이 대략적인 줄거리.

'천수경이야기'와 '금강경이야기'는 올해안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다.

김호성씨 원작의 '천수경이야기'와 법륜스님이 지은 '금강경이야기'는 MBC 인간시대 작가 이종환씨가 시나리오 집필에 들어갔으며 이달말에 각각 탈고할 계획이다.

내달초부터 촬영하게 될 '천수경이야기'는 인도, 네팔, 티벳 로케로 상·하편을 동시에 제작한다. 또 '금강경이야기'도 내달 중순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영상사업부는 "경전의 영상화는 첫시도인 만큼 경전의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돼야 한다는 대전제 속에서 영상제작에 따른 확실한 고증과 기술적인 완벽성 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상파 광고 자율화

공보처, 방송 5개년계획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부응하여 지상파방송 광고제도가 단계적으로 자율화될 전망이다.

공보처는 지난 14일 방송전반에 걸친 앞으로의 정책지표를 제시하는 '선진방송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지상파방송은 가용주파수 범위에서 지역FM방송을 허용하고 교육방송 지역국을 5개 광역시에 허가하며 95년 하반기부터 1시간30분, 96년 상반기에는 오전 2시간이 늘어 97년 1월부터 종일 방송체제를 확립한다는 점차적인 계획이다. 케이블텔레비전은 '선 케이블텔레비전육성 후 위성케이블 연계발전'안을 택했다고 전제하고 시청인구의 조기확산을 위해 10만가구 구역분할을 50만가구 이내로 확대하고 미허가 지역에 대한 추가허가시 우선적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며 국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채널수에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96년에 도입키로 했다.

불자가수 김광석 콘서트

불교방송 '밤의 창가에서' 진행자 가수 김광석씨가 내달 1일부터 한달간 동숭동 대학로 학전극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유치원교사 연수회

진각종, 생활교육 주제로

진각종 중앙교육원(원장 도흔)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총인원에서 전국 유치(아)원 교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기 교사연수회를 실시했다.

'전인적인 생활교육'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연수교육은 교법강좌, 교양강좌(유아 음악·미술 지도법, 과학 지도) 등을 비롯 교사들의 자체연수 (율동발표회, 교재교구 만들기, 지도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교육원장 도흔정사는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종교교육을 통한 유아의 인성교육을 확고히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현장에서 유아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각청년회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아름다운 삶, 숨쉬는 역사'를 주제로 경주지역 일원에서 하기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불적답사, 위덕대학 현장방문, 전국청년회 창립22주년 기념법회 등 다채로운 내용의 법회와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1일 하계수련회

총지종, 온양 수련원서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안효강)은 8월 1일부터 2일까지 충남 온양 충무수련원에서 어린이 하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한편 종립동해중학교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충북 수련원에서 교사수련법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태고종 종무직원 연수교육 실시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총무원 설법전에서 종무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총무원과 종무직원간의 원활한 종무행정과 유대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회에서 박서봉 총무원장은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불사가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무직원의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수기간동안 종헌종법, 종무행정방침, 종조론, 태고종사, 종교정책등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경쟁시대의 포교방송

목탁소리 / 김 원 우 〈취재2부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 '선진방송 5개년 계획'를 발표함에따라 방송의 무한경쟁시대가 현실로 다가섰다.

아울러 포교매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btn과 BBS는 방송구조의 재점검, 경쟁력강화 등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방송업계의 개혁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고 하는 '선진방송 5개년 계획'은 불교계 방송매체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이다.

따라서 교계및 방송가의 안팎에서는 btn과 BBS의 자구책 모색과 관련한 염려의 시선이 없지 않다. 공중파방송의 장점이였던 코바코의 광고평균화정책이 종합방송사의 요구대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키로 함에 따라 종교방송에 광고를 꺼려하는 기업주들로 인해 BBS의 광고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 2차주식공모를 저조한 실적으로 마감한 btn은 앞으로의 운영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btn과 BBS는 상업적 목적의 방송사가 아닌 불교포교방송이다. 21세기 뉴미디어시대 불교계의 방송매체를 담보 할 수 있는 매체포교의 총아인 것이다.이런 설립취지에서는 경쟁관계를 이겨나가기위한 상업방송화라는 대안을 채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교계의 포괄적인 참여와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정립시키는 다각적인 발전방향 모색만이 경쟁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또 btn과 BBS는 방송이라는 구조속에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로 승부해야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방송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꾸준한 홍보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부대중이 하나되는 내외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btn과 BBS는 경쟁적 방송시장의 도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먹구름에서 벗어나 불자들의 신행을 이끄는 방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생활속 불교사상 집중조명

TV 신행상담 (27일 11:10~12:00) 소홀하기 쉬운 불교의 기본교리를 심도있게 다뤄본다. 또 생활속의 불교사상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명.

박광서교수 21C불교 강의

btn특강 (28일 12:30~13:20) 서강대 물리학과 박광서 교수를 초청하여 '21세기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문화전환기의 불교의 새로운 역할과 함께 한국의 정치, 사회적 역할, 불자의 자세를 강의.

불자기업인 박민선씨 초대

나의 삶 나의 불교 (29일 11:10~12:00) 귀뚜라미보일러 박민선회장. 세운상가의 작은 난로가게에서 출발하여 보기드문 보일러기업으로 만든 독실한 불자기업인이다.

케인의 도움 바라는 소년

만행승 케인 (30일 21:00~21:50) 산길을 가던 케인은 나쉬보라라는 인디언소년을 만난다. 나쉬보는 케인이 수호신이라 믿고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을 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정지호교수 '불교와 수학' 강의

오늘을 이끄는 불교 (28일 11:05~11:20) 동국대 수학과 정지호 교수가 '불교와 수학'을 주제로 강의한다.

휴가지에서의 환경보호

환경패트롤 (29일 14:10~15:00) 휴가철을 맞아 재점검하는 '환경적인 휴가를 보내자' 두번째 시간.

옥야경의 '일곱가지 아내'

교리강좌 (30일 11:05~12:00) '일곱가지 아내'에 대해 옥야경의 이야기를 공부해 본다.

Q채널 ch25

리틀부다 제작과정 담아

리틀부타를 만들기까지 (30일 21:00~22:00)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리틀부다를 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달라이라마를 만났을때의 충격과 서구 영화인들이 티벳불교의 정신세계에 빠져드는 모습을 담고있다.

출판·편집 안내

인생은 짧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도서출판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자서전·회고록·개인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자서전 ◎ 회고록 ◎ 출판대행
◎ 유고집 ◎ 향토지 ◎ 편집대행

※ 인생 경험과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불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제작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 (02)725-6752~4

부처님의 사상과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경전

법구경의 세계

이원섭풀이
신국판 / 398쪽 / 7,000원

법구경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그 속에는 광활한 불법의 세계와 불교사상의 전반이 담겨져 있다.

불교학자이자 시인인 저자가 어려운 용어나 문구에 대한 설명을 비롯, 각각의 게송에 맞는 경전 속의 적절한 비유와 예화,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여러가지 경험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 법구경의 진수를 읽으면서 체득할 수 있게 해 준다.

도서출판 운 주 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02) 720 - 9372 · 3 FAX (02) 723 - 0546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856-3280